안녕하세요! 양재미식회 송솔규 매니저입니다.

저는 원래 점심시간에 딜리버리 음식을 먹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었는데요, 점점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점심시간에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점심 틈새를 이용해 동료분들과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식사도 최대한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만큼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숨겨진 건강 맛집, 바로 "원조 강영숙 봉평메밀촌"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봉평메밀촌은 양재시민의숲역을 지나 오른쪽 골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시간을 재보니 제 걸음으로는 11 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지만 중간에 횡단보도도 있고 하니, 여유있게 15 분 정도를 잡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드디어 도착! '원조', '강영숙', '봉평', 그리고 '메밀촌'. 가게 이름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가 맛집의 위엄을 풍기고 있지 않나요? 제 경험상 이렇게 창업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은 맛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당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곳을 예전부터 좋아해서 점심과 저녁에 여러 번 왔었는데, 대부분은 대기가 없었고 가끔 대기가 있더라도 테이블 회전율이 빨라 금방 자리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약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이 곳의 대표 메뉴는 다름아닌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인데요, 주문할 때는 식당 단골고객답게 '물막', '비막'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 "여기 물막 하나요~!") 막국수는 아무래도 메밀로 만들어지다 보니 쫄깃한 식감보다는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메밀막국수의 매력이기도 하죠!

식당 벽 한 켠에는 메밀의 효능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피부미용과 비만 예방부터 당뇨와 성인병, 중풍 예방의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과학적 효능은 잘 모르겠지만, 먹었을 때 부담이 없고 건강한 음식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메밀전병, 만두, 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 '꼬물이만두'와 '꿩만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꼬물이만두는 마치 물만두처럼 조그맣게 생겼는데 투명하고 쫄깃쫄깃한 만두피의 식감이 일품이고, 꿩만두는 마치 대만의 샤오룽바오처럼 육즙이 국물처럼 흘러나오며 풍성한 맛을 자아냅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네요! 물막이든 비막이든 약간의 다대기가 들어가 있어 새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막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막은 다대기 양념의 깊은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꼬물이만두와 꿩만두까지 사이드로 함께 먹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메뉴당 9 천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HEAT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곧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오늘 점심은 원조 강영숙 봉평메밀촌에서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어떠실까요?

참고로 주변에 커피가 맛있는 동네 카페들과 수풀이 우거진 산책로도 있으니, 꼭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